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AI시대의 영성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Tag:

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20:12)

지난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이 있었다.

알파고가 4:1로 이세돌을 이겼다. 알파고는 바둑천재들과 74회 대결을 가졌는데, 오직 이세돌군만 한번 이겼고 나머지 73회는 알파고가 이겼다.

왜 알파고가 이겼을까? 알파고는 영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영성은 고사하고 감성조차 없다. 그는 이겼지만 승리의 기쁨도 모른다. 반면 이세돌은 극도의 긴장감, 지게 될 경우에 받게 될 비웃음, 온 세계가 관심있게 지켜보는 대국장면 등, 알파고는 느끼지 못하는 막중한 중압감 속에서 대국을 치루었다. 그때 이세돌이 받는 스트레스를 알파고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스트레스 마저 인공지능으로 계산한 다음 그 여파로 인한 추론의 오동작까지 예측해서 AI가 계산했다라면 틀림없이 이세돌이 5:0으로 알파고를 이겼을 것이다.

이세돌기사가 한번 이겼는데, 그 이유는 그냥 아무렇게나 돌을 던졌다는 것. 알파고는 당황하여 그때부터 오동작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세돌이 이겼다.

막 던질 수 있는 여유가 영성이다. 우연이나 섭리에 맡기는 것이다. 그랬더니 AI는 당황하게 된다. 왜 이렇게 두었는지가 파악되지 않고 결국 지게 되었지 않을까.

영성이란 (신령한) 관계의 기술이다. 영성이란 신령한 관계의 회복이다. 고로 기독교영성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

이시대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교수는 말한다.

지성 없는 영성이 없고, 영성 없는 지성이 없다.

그러나 지성이 곧 영성은 아니다.

(지성)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설명하는 것.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

영성은 설명해서는 않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

영성은 설명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내 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내셨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밀가루에 넣은 누룩을 보라, 달란트 비유, 열처녀의 비유 등)

그래서 영성이란 안개자욱한 날 이곳에서 안개에 뒤덮여있는 저곳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기술이다.

영성은 지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

IQ 지성, EQ 감성, SQ 영성, JQ 잔머리지수.(따라쟁이, 손가락 없기술, 고객가로채기술, 새치기술)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이어령씨 책이름.

AI시대에는 영성이 있는 자가 매력이 있다.

-AI 시대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의 차이가 결정적이지 않은 시대다. 누구든 시리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발음이 정확한 사람이 유리함)

-AI시대에는 정확하게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유리함.

-AI시대에는 지식 너머를 예측하는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유리함.

-AI 시대에는 지성보다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 더 유리함.

-AI시대에 영성의 진정한 가치가 더욱 빛난다.

-AI 같은 인간 < 영성이 풍성한 인간

그러나 지성을 무시해서도 않된다.

종교가 과학을 지배할 수도 없지만, 과학이 종교에 도전할 수도 없다. (Stephen Jay Gould, 미국 고생물학자)

진화론도 너무 적대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것은 과학도 아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결코 가정하지 말아야 할 우연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함.(확율이라는 수학적 용어로 자신의 우연을 지적으로 표현할 뿐) 우연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천만번 로또맞을 우연이 있을까?

* 지식만 있다면 그것이 곧 악.(선악과)

영성이 풍성할 때면 지식은 곧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지성이 풍성하면 빅데이터, AI시대가 되지만, 결코 영성이 주어지지 않는다.

손으로 만져보세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거기 있습니다. (역시 문학대가 이어령)

이어령 교수의 80초 생각나누기 어머니의 발

사회생활에서 십계명의 제5계명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 속에 관계의 핵심이 모두 들어있다.

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20:12)

-나와 부모님과 하나님 그리고 생명

-그런데 이 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민족이 곧 우리 민족이다. 우리는 유교적 가치관이 강해서 부모님께 대한 갖가지 계명들이 많다. 너무 지나쳐서 율법화 이상화 되었기에 문제가 되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효도백과사전까지 존재한다. (효행설화)

우리나라의 효도이야기를 전해들은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처럼 특별하게 발전할 수 있었구나고 머리를 끄덕인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샘리차드 교수는 한국 강의로 유명함.

-앞으로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닌, 관계 형성을 잘 하는 사람이 뜨는 세대.

-앞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임. AI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여러분의 영성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자유주의 자본론

성경: 마태복음 20장 1-16절

Tag:

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2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 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5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서 있느냐

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 하니

9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

자본의 자유를 생산하지 못함.)

왜 돈인가? 돈은 모든 가치의 총화

1.가치기준

2.유통편리

3.저축과 휴대성 편리

4.보장성(국가책임)

5.가능성 큼(능력, 유흥, 선행, 악행, 권력쟁취, 시간구매, 노동력구매, 재화구매, 기회구매 등)

-노동의 가치;한국5천만의 생산성과 인도 12억의 생산성이 동일함.

-노동자의 적은 노동자, 자본가의 적은 자본가.

토마 피케티 (Thomas Piketty, 1971년 5월 7일 ~)는 부, 소득과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프랑스의 경제학자이다.

-2014년 '21세기 자본'은 한국에서 최초로 번역함.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 or 소득성장률보다 높다.

-80% 부유세 주장. 민중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부유세주장, 상속자본주의. 삼성일가를 지독스럽게 괴롭히는 근거를 대는 학자.

김일성은 강탈적 독재자. 그는 세계에서 드문 부를 소유하고 국가 전체를 쥐락 펴락하는 자. 그러나 그의 통치는 세계최빈국으로 전락.

-70년 내내 미제국주의를 타도함.

-자본주의를 저주함.

*돈이 돈을 낳는다? 헛소리. 노키아와 애플의 아이폰